

내년 총선 겨냥 '호남발 정계개편론' 속도 낸다

평화·바른미래·무소속 호남의원들 '위기감' 공유 제3지대론 성패 좌우...국민의당 출신 논의 활발

내년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계개편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무소속 호남 의원들 간의 '호남발 정계개편론'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계개편론과 관련,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무소속의 보수성향 의원들과 대한애국당을 끌어안는 '보수통합론'과 과거 국민의당에 뿌리를 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무소속 의원들이 연대 혹은 통합하는 '제3지대론' 등이 꼽힌다.

특히 '제3지대론'의 경우 사실상 '호남발 정계개편'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호남발 정계개편'의 3축은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무소속 호남의원들이다. 우선 평화당의 경우 현재와 같은 국회 비교섭단체 상황에서는 '호남 정치' 강

하나 복원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없고, 바른미래당 호남의원들의 입장에서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실제 평화당의 박지원·장병완·황주홍·최경환·김경진 의원 등과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은 지난 2월부터 만남을 이어오며 정계개편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의 경우도 평화당 유성엽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은원 의원 등이 함께 '제3지대' 합류를 모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한 일부 무소속 호남 의원의 경우 여당인 민주당 입당을 내심 바라고는 있

나 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그동안 기존 지역구를 지켜온 원외 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지지 분위기가 강해 '무혈입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 찾기가 시도되고 있다.

지난 1월 민주당 입당설이 불거졌다 무산된 무소속 손금주 의원 역시 "자세한 얘기는 말할 수 없다"고 함구하고 있지만, 관측통들은 당 고위 관계자와 사전 교감 아래 민주당 나주·화순 지구당 위원장 입당을 추진했으나, 신정훈 현 위원장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좌절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주선 의원은 "평화당 및 무소속 호남 의원들과 종종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등 양 거대정당의 전횡에 맞서 우리가 내걸었던 중도개혁과 동서화합 등의 가치를 살려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라고 밝혔다.

'호남발 정계개편론'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창당 4개월 만에 38석이라는 성과를 낸 과거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실제 논의의 주체인 평화당·바른미래당·무소속 호남 의원은 대부분 국민의당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호남발 정계개편론'에 더해 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은 '제3지대론'까지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다.

평화당·바른미래당·무소속 호남 의원들과 손을 잡아 제3지대에 신당을 만들되, 시민사회나 학계가 중심으로 창당하자는 주장이다. 신당 창당의 장외 구심점으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초선의원으로 당내 '젊은 피'로 분류되는 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최근 당 개편대회에서 "모든 기회를 내리놓고 변화에 앞장서서 건강한 제3지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박지원 의원과 함께 호남발 정계개편론을 직접 견인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504표 차로 석패한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 표를 흡수했다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빅텐트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진수기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새빛콜 동승체험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앞둔 18일 오전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청 행정동 앞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새빛콜 동승체험을 위해 이인준 광주장애인연합회장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답성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

광주시, 장애인정책 비전·전략 선포

李시장 "장애인 회관·복합수련시설 조속 완공"

광주시가 '장애인이 행복함, 주체적이고 동등한 삶'을 장애인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5개 영역의 추진전략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18일 오전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장애인 정책 비전과 전략을 선포했다.

이 시장은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안전하고 차별없는 인권 공동체 구현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및 건강권 확대 등의 5대 전략을 제시했다.

5대 전략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제도 및 정책 개선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권익 강화 ▲장애인 안전 환경 조성 ▲특수교육 기반강화 ▲장애인 평생 교육권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체육을 통한 장애인 건강증진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관범기자

또 ▲장애인 복지시설 기반구축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지역사회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망 구축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정신장애인 지원 강화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이동권 보장, 자립생활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매진하겠다"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신장, 건강복지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장애인회관과 장애인복합수련시설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최관범기자

광주도시공사, 전국 첫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광주도시공사는 전국 개발공사중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앞서 지난 2015년 안전보건 단체인 'OHSAS 18001'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에 인증 받은 'ISO 45001'은 최고경영자 및 모든 조직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 활동으로 사업장 활동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예측, 예방해 조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지키는 제도다.

공급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창출과 조직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위험도를 자체 평가해 지속적인 개선 및 관리를 함으로써 작업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기준은 조직상황,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기획 및 지원, 운용 및 성과평

가, 개선 등에 대한 2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사는 이번 인증 평가에서 특히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수립 ▲안전보건경영 프로세스 수립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매뉴얼 작성 ▲현장 실태조사·컨설팅을 통한 각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안전교육·안전점검 활동 강화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관범기자

광주수영대회 조직위, 아모제푸드와 급식후원 협약

국내 굴지의 종합외식기업인 ㈜아모제푸드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급식 분야에 공식 후원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8일 조직위 회의실에서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과 아모제푸드 신회호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급식부문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아모제푸드는 후원사 자격으로, 선수촌·미디어촌과 각 경기장에서 선수, 임원, 미디어, 대회운영인력

등에게 수준 높은 식음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모제푸드는 국내 서플라이어 후원사 지위를 부여받아 대회 로고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고 자사 브랜드를 로고와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조직위는 대회 급식 제공이 선수들에게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대회 참가자들에게 대회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아모

제푸드는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유럽식, 아시아식, 한식, 할랄식 등 다양한 메뉴 등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모제푸드 신 회장은 "여수세계박람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평창올림픽 등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되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즐겁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관범기자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 청소년 정보보호 인력 양성

광주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 지역 대학생과 고교 재학생을 연계한 '청소년 정보보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정보보호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대학생정보보호 동아리 우수 인재를 강사로 참여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정보보호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동아리는 전남대 정보보호119, 조선대 Hacker Login, 전북대 IS(Inisble Shield) 등이다.

교육은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서 진행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정보보호이론 ▲시스템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웹 보안기술 이론 및 실습 ▲모의해킹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과 강사로 활동하는 정보보호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취업 멘토링,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정보보호 통합관리실 견학, 정보보호 현장실습 등을 제공한다. /최관범기자

제2회 광주매일신문 회장배 아마추어 골프 대축전

2019년 4월30일(화) 전남 나주 해피니스CC

지역사회에서 융·복합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전국 아마추어 골프 동호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해 '제2회 광주매일신문 회장배 아마추어 골프 대축전'을 개최합니다. 지난 2월 베트남 달랏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제1회 대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역의 명문 골프장으로 손꼽히는 해피니스CC에서 펼쳐집니다. 240명이 참가해 샷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축전은 18홀 라운드를 통해 기량을 겨루며 신페리오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푸짐한 시상품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골프 대축전에 골프동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대회기간 : 2019년 4월30일(화) 오후12시~
- 대회장소 : 전남 나주 해피니스CC
- 모집인원 : 남·녀 240명(60팀)
- 참가자격 : 만 25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남·여 골퍼 (4명이 한팀으로 구성해 출전 할 수 있음)
- 경기방식 : 18홀 신페리오 방식에 의거 순위 결정

- 시 상 : 우승, 메달리스트, 통기스트, 니어리스트, 다버디상, 다파상
- 접수기간 : 2019년 3월26일(화)-4월20일(토) 오후 5시까지(선착순 마감)
- 참가금액 : 3만원(참가기념품·시상식 만찬 제공)-그린피·캐디피 개인부담
-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23257 예금주 : 광주매스컴(광주매일신문)
- 입금확인 : 062-650-2020 / 010-4622-2580

주최 광주매일신문

협찬 HAPPINESS 광주세정점 HAZZYS 광주철단점

주관 한국골프클럽협회 광주전남지회

문의안내 광주매일신문(062-650-2020)